

# 원팀... 원팀



김연경이 4일 일본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8강 타기전에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오른쪽 위는 박정아, 아래는 염혜선 선수. /연합뉴스

드라마틱한 한국 배구의 4강 진출에는 빼어난 활약을 보여준 3인방이 있다.

김연경(33·중국 상하이), 박정아(28·한국도로공사), 염혜선(30·KGC인삼공사)이다.

이들은 4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배구 여자부 8강전 타기전에서 투혼을 불사하며 승리의 초석을 놓았다.

대한민국 배구팀을 '원팀'으로 만든 김연경의 리더십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왜 '갓 연경' 인지를 보여줬다"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김연경은 이날 코트 안팎에서 대표팀의 중심을 잡으며 팀을 올림픽 4강 무대로 끌어올렸다.

도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은 타기전에서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모든 것을 쏟아냈다.

매 순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팀 최다인 28

## 한국 여자배구 4강 진출 견인한 '3인방'

**'갓 연경' 김연경, 코트 안팎서 중심 잡으며 팀 이끌고  
'클러치 박' 박정아, 절체절명 순간마다 빛나는 결정력  
'인동초' 염혜선, 이다영 하차에 주전 세터 맡으며 활약**

점을 기록했다.

승부처였던 3세트 24-23에선 주심이 양호진(현대건설)의 플레이를 두고 쉼표 없는 포히트 범실을 선언하자 거칠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경기 뒤 김연경은 "1세트부터 심판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상대가 항의하면 보상판정을 하더

라"며 "항의가 통하는 심판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타기가 추격하는 상황이라서) 한 번쯤 경기를 끊어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판단했다"고 과격했던 항의의 속내를 드러냈다.

박정아는 '김연경을 도울 레프트'로 이미지를 각인했다.

그는 국내 프로배구 V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

다. 고비 때마다 결정력 있는 공격을 펼쳐 '클러치 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도 '클러치 박'의 결정력이 빛났다.

이날 박정아는 3세트 27-26, 절체절명의 순간에 세트를 끝내는 득점을 했다.

상대 주포 메리엄 보즈의 강력한 후위 공격을 리베로 오지영(GS칼텍스)이 현란한 수비로 견어 올리자, 박정아가 '블로커 손을 노린 오픈 공격'을 성공했다.

경기가 끝난 뒤 박정아는 "3세트 듀스에서 긴장 하긴 했는데 언니들이 '괜찮다, 할 수 있다, 버티자'라고 말해주었다. (리베로) 오지영 언니가 많이 격려해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목포여상 출신인 세터 염혜선은 마지막 출전한 이번 올림픽에서 팬들에게 존재감을 심었다.

고교 때 태극마크를 달았을 정도로 유망했으나 프로에서 이다영에게 밀려 빛을 보지 못한 설움을 씻어냈다. 첫 올림픽이었던 2016년 리우대회에서는 '백업'이었다.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도 염혜선은 주전세터가 되겠다는 열망을 놓지 않았다. 이다영이 학폭 논란으로 하차하자 드디어 출전 기회를 얻어 코트에 서게 됐다.

그는 많은 경기에서 나서지 못한 탓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과 경기에서 4개의 서브에이스를 기록했고, 일본전 5세트에서는 정확한 패스로 박정아의 결정적인 득점에 역할을 했다.

타기전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활약을 선보였다. 적절한 볼배급과 경기 흐름을 읽는 토스로 공수를 조율했다. 상대 블로킹을 따돌리는 볼배급 등에서 제자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 女골프 올림픽 2연패 출발 좋다 고진영·박인비 1R '톱10' 안착

여자골프 세계랭킹 2위 고진영(26)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챔피언 박인비(33)가 2020 도쿄올림픽 우승 도전을 무난하게 시작했다.

고진영은 4일 일본 사이타마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파71·6648야드)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오후 2시 20분 현재 경기를 마치지 않은 가운데 5언더파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린 마들렌 샥스트림(스웨덴) 등에게 2타 뒤진 공동 4위다.

2019년 7월 메이저대회 예비앙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이후 2년 가까이 유지해오다 올해 6월 말 넬리 코다(미국)에게 내준 고진영은 이날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 속에 코다, 하타오카 나사(일본)와 동반 라운드에 나섰다.

고진영은 생애 첫 올림픽 라운드에서 12번 홀(파5)까지 버디 2개와 보기 3개로 한 타를 잃었으나 13번 홀(파4)부터 버디만 4개를 슈어내는 집중력으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고진영은 "전반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아쉬움이 있었으나 후반에 정신을 차리고 독기가 생긴 채



고진영



박인비

있었다.

당시 은, 동메달리스트인 리디아 고, 평산산(중국)과 같은 조에서 타이틀 방어전을 시작한 박인비는 초반엔 매서운 아이언 샷 감각을 앞세워 상승세를 탔다.

2번 홀(파4) 두 번째 샷이 핀을 스치고 홀을 돌아 나와 40cm가량에 붙어 탭인 버디로 이어졌고, 5번 홀(파5)과 6번 홀(파4)에서도 연이어 1m 이내 버디 기회를 만들어 살려냈다.

하지만 이후 3~4m 버디 퍼트들이 조금씩 빗나 가며 타수를 더 줄이지 못하던 박인비는 마지막 18번 홀(파4)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하고 칩샷도 짤아 결국 유일한 보기를 적어낸 채 경기를 마쳤다.

박인비는 "날씨가 이 정도로 더운 줄 몰랐다. 후반 몇 개 홀은 어떻게 친 줄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며 "전반 출발이 좋아 후반에도 타수를 많이 줄여보려 했는데, 퍼트가 아쉬운 라운드였다. 그린 적용 등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주(26)는 14번 홀까지, 김세영(28)은 13번 홀까지 각각 한 타를 줄여 10위권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 '만리장성' 못 넘었지만 동메달 남아

男탁구, 중국에 0-3 완패...6일 오전 11시 3·4위 결정전

한국남자탁구가 '만리장성' 중국을 넘지 못해 2020 도쿄 올림픽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상수(삼성생명), 정영식, 장우진(이상 미래에셋증권)으로 이뤄진 세계랭킹 4위 한국은 4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마룽, 판전둥, 쉬신 이 나선 1위 중국에 0-3으로 졌다.

6일 오전 11시 동메달을 놓고 3·4위 결정전을 치른다.

3·4위 결정전에서도 지면 한국 탁구는 2개 대회 연속 '노메달'의 수모를 떠안게 된다.

여기서 이기면 남자 탁구는 2012년 런던 대회 은메달 이후 9년만에 올림픽 메달을 수확한다. 이날 패배로 남자 탁구는 중국과의 단체전 상대 전적에서 1승 26패의 절대 열세를 이어갔다.



4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탁구 단체전 한국-중국 준결승. 이상수(왼쪽)-정영식이 마룽-쉬신을 상대로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전적만 놓고 보면 한국은 중국에 4전 4패를 기록하게 됐다.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한국은 중국과 4차례 맞대결에서 한 게임도 따내지 못하고 모두 게임점수 0-3으로 졌다.

/연합뉴스